

미나세(水無瀬, 미나세)

16 세기 말(아즈치 모모야마 시대), 미나세 카네나리(水無瀬兼成)가 오기마치(正親町) 천황의 칙명(勅命)을 받아 휘호(揮豪)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하며, 4 대에 걸쳐 기물 만들기를 계속했습니다. 미나세가에서 만들어진 일련의 기물은 '미나세 기물'이라 불리며 기물 명의 원류가 되고 있습니다.